

Story Sunday #1
The Story of You
Bo Stern-Brady
September 8, 2024

스토리 선데이 #1
당신의 이야기
보 스펀-브래디
2024년 9월 8일

COUNCIL: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Bible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us. Stories. We all have them and the Bible is FULL of them. IN fact, we sometimes look at the Bible as a giant reference book of doctrine. Principles. Holy stuff. But really, the Bible is a library of 66 books - each with a specific point of view and style and story. The Bible is filled with characters - real humans who are living out a real story. I like to read the Bible and picture the characters in the story as witnesses on the witness stand. They are giving testimony of something...either of the ways we've gotten God wrong or of the reason we desperately need Jesus or of the character or way of Jesus. The stories in the Bible are teeming with the evidence of God and the evidence of our own need to capture the story in which we are living and interpreting His will in our world.

Some of the stories are big, like Noah working day after day, building a huge boat to rescue them from a catastrophic storm when the people had not yet experienced rain. Like Moses, lead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out of slavery and into a wilderness. But some of the stories are more obscure.

In Numbers 13, we read the story of Moses sending 12 spies into the promised land to scout it out. The bible lists out each name, the tribe they're from and who their father is. ALL the spies come back saying, this place is CRAZY! It's filled with bounty and beauty and abundance. Good news. BUT, ten of them say, "But the people are HUGE and scary and they are not going to go quietly."

COUNCIL: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Bible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us. Stories. We all have them and the Bible is FULL of them. IN fact, we sometimes look at the Bible as a giant reference book of doctrine. Principles. Holy stuff. But really, the Bible is a library of 66 books - each with a specific point of view and style and story. The Bible is filled with characters - real humans who are living out a real story. I like to read the Bible and picture the characters in the story as witnesses on the witness stand.

They are giving testimony of something...either of the ways we've gotten God wrong or of the reason we desperately need Jesus or of the character or way of Jesus. The stories in the Bible are teeming with the evidence of God and the evidence of our own need to capture the story in which we are living and interpreting His will in our world. Some of the stories are big, like Noah working day after day, building a huge boat to rescue them from a catastrophic storm when the people had not yet experienced rain. Like Moses, lead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out of slavery and into a wilderness. But some of the stories are more obscure. In Numbers 13, we read the story of Moses sending 12 spies into the promised land to scout it out. The bible lists out each name, the tribe they're from and who their father is. ALL the spies come back saying, this place is CRAZY! It's filled with bounty and beauty and abundance. Good news. BUT, ten of them say, "But the people are HUGE and scary and they are not going to go quietly." Caleb and Joshua say, "Nope! WE must go take possession, we can definitely conquer this place."

의회:

우리는 성경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야기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교리의 방대한 참고서로 여깁니다. 원칙들. 거룩한 것들. 하지만 사실 성경은 66권의 책이 모인 도서관과 같습니다. 각 책은 고유한 관점, 스타일, 그리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증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던 방식이거나, 우리가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이거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방식에 대한 증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에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증거로 가득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큼니다. 예를 들어, 노아가 날마다 거대한 배를 만들어 폭풍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준비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비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또 모세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노예 생활에서 광야로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더 모호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어 그 땅을 조사하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 속한 지파, 아버지의 이름을 모두

나열합니다. 모든 정탐꾼들이 돌아와 이 땅이 미친 듯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풍성하다고 보고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중 10명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너무 크고 무섭습니다. 그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The rest of the men: **The land we explored devours its inhabitants, and all the people we saw there are great in stature...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sight, and we must have seemed the same to them!” Numbers 13:32, 33**
나머지 사람들: “우리가 탐험한 땅은 그곳의 주민들을 삼켜 버리는 땅이고, 우리가 본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신장이 큰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민수기 **13:32-33**

The story isn't just the story. The story creates an ideology. We are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eyes...and now our enemy agrees. God had already named them victorious, but their experience as they sized themselves up next to their enemy disqualified them from the inheritance. The story of spying out the land rearranged how they would see themselves, their God and their future.

The stories we live out have so many implications. If your life is a book that you are writing, is both an autobiography and a cookbook. It's both. Your autobiography is WHAT happened on the days you were given. But there is a hidden appendix in the book of each person's life that explains the many recipes we learned to use because of those experiences. (Cookbook Cliff bought for me.) Nearly every story you've lived out, has embedded a sub-story or a meta narrative inside of you about what you believe to be true.

Your story is filled with - for lack of a better word, “recipes” or formulas. This plus this equals that. They are thoughts, feelings and the conclusions drawn because of them. They are mostly invisible to you, but they are as important as any of the stories, or events, your book contains. You have formulas around money, around food, around work, around friendship, around affection, around abilities, around love. Probably MOSTLY around love. We have a million stories that have created recipes around what it takes get love. (My sister - green thumb. I once cried in my room because everyone who came to our house raved about a beautiful plant that she had cultivated from a tiny little nothing to an overflowing beauty. You know there's more to the story when you cry over a coleus. I was the youngest. I felt unseen for a long time. Invisible and without talent. A recipe had been written up in my head - **achievement =**

acceptance and admiration, so every time someone liked the plant, it felt like they were directly saying, “You have no value.” This is lame and we all know it. But it’s also real and we all know it. And the stories in our book are one thing...but the huge appendix of recipes created by them is another altogether. And just because the recipes are in the book - even a book that represents many wonderful experiences- doesn’t mean the meals you make out of them are delicious.

Jesus comes not to erase our stories, but to make sense of them and to rewrite the recipes. To bring holy redemption to them. He comes to heal the broken places in our hearts that have come because of our story - because, as we talked about last week, we were born into battle.

I heard a song the other day, that I actually really liked, but one line said, “You’ve buried my past, I’m not going back.” While I believe that in terms of freedom - I don’t have to return to living the way I used to live, I actually don’t think God’s goal is to obliterate or bury our past. I think He sent Jesus to redeem our stories, to weave beauty and purpose in them...to reroute the neuropathways that have written lousy recipes in our souls. God cares not just about what we’ve experienced, but the ways that our experiences have shaped our thinking for good and for bad. Freedom is not being set free of our whole history, as if it didn’t happen - freedom is being able to rewire the way our stories cause us to misinterpret Jesus and ourselves.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이제는 우리의 적들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자신을 적과 비교해 평가한 경험은 그들을 상속의 자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야기는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그리고 미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당신이 쓰고 있는 책이라면, 그 책은 자서전이자 요리책입니다. 둘 다입니다. 자서전은 당신에게 주어진 날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 책에는 숨겨진 부록이 있습니다. 그 부록에는 그 경험들로 인해 우리가 배우게 된 여러 가지 ‘레시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클리프에게 선물로 받은 요리책처럼요.) 당신이 살아온 거의 모든 이야기에는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하위 이야기나 메타 내러티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더 나은 표현을 떠올리지 못해 "레시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더하면 무엇이 된다는 공식입니다. 그 공식들은

생각, 감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들입니다. 그 공식들은 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이야기에 담긴 사건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돈, 음식, 일, 우정, 애정, 능력, 그리고 사랑에 관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사랑에 관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여동생이 식물을 잘 기르는데, 나는 한 번 방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작은 식물에서부터 키워낸 아름다운 식물에 대해 칭찬했기 때문이죠. 콜레우스 식물 때문에 울었다면, 그 이야기 속에는 분명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막내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재능 없는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성취 = 수용과 칭찬’이라는 레시피가 쓰여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 그 식물을 칭찬할 때마다 그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유치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책 속의 이야기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 레시피가 담긴 부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들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레시피로 만든 요리가 모두 맛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지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레시피를 다시 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로 인해 우리 마음에 생긴 상처들을 거룩하게 구속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쟁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러 오십니다.

얼마 전,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들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당신이 나의 과거를 물어버렸고, 나는 돌아가지 않아요.”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거나 물어버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구속하시고, 그 안에 아름다움과 목적을 엮으시며, 우리 영혼 속에 나쁜 레시피를 썼던 신경 경로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좋든 나쁘든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유란, 우리의 과거 전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Psalm 139 says this: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n me.**

**2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understand my thoughts from afar.**

**3 You search out my path and my lying down;
You are aware of all my ways.**

**4 Even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all about it, O LORD. Psalm 139:1-4**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셨나이다.

2 내가 앉고 일어섬을 주께서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3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기 전에
이미 다 아시나이다.

시편 **139:1-4**

David starts with the fact that God knows the DETAILS. Our coming and going. Our sitting and sleeping and rising. These are the regular details of a regular life. The events of a day. But then he says: You understand my thoughts from afar...even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all about it. Some translations say, "You know it altogether." Altogether = "in complete totality". From start to finish. The full trajectory of word..."before it's on my tongue". He knows how that thought formed and why. He sees the full journey it took to get there. Me at Macys, crying in the dressing room. The woman heard me say, "I'm sorry I'm crying, I just hate the sound of that bell." I imagine what she might have said to her husband when she got home about the crazy lady in the dressing room. But Jesus saw the way that sentence formed over the long haul of caring for a husband with the very same tone on the alarm button he pressed. He doesn't just hear me say, "I hate that bell." He sees the recipe. He sees the pain and fear that went with the sound of that bell for the very longest time.

How many stories have you lived that have created a automatic thoughts in your mind about who you are or who God is or how the world works? So many. God knows them all. That's your story, and he knows it altogether. In complete totality.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신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오고 가는 것, 앉고, 눕고, 일어나는 것들. 이것은 평범한 삶의 평범한 세부 사항들, 하루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내 혀에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완전히 아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 말의 전개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내 혀에 나오기 전에" 그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아십니다. 그 말이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여정을 보십니다.

메이시스에서 나는 탈의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는 것 죄송해요, 저 벨 소리가 너무 싫어서요." 아마 그 여성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탈의실에서 만난 이상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한 그 문장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셨습니다. 같은 소리를 내는 남편의 알람 버튼을 돌봐왔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여정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벨 소리가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만 듣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레시피"를 보십니다. 그 벨 소리에 오랫동안 깃든 고통과 두려움을 보십니다.

당신이 경험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당신 마음속에 자동적인 생각을 심어 두었나요?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생각들 말입니다. 셀 수 없이 많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게 당신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You hem me in behind and before;
You have laid Your hand upon me.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too lofty for me to attain. Psalm 139:5-6**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위에 손을 얹으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39:5-6**

Behind and before. Past. Present. Future. He securely holds the book that is your life if you'll let Him. He sees this little scratch on the timeline that you occupy. He has been to the future and back. He's been to every minute you will ever face and he's made provision there. Your story is already known to him, though the pages ahead may seem dark and mysterious to you - He already knows.

And here's something we have to understand if we're going to be part of any community. Inside this room today are a million stories - some clearly seen, others buried deep - and maybe a billion different recipes. We each bring the complete totality of our history into this room every Sunday. We won't see all the backstory, but we'll sometimes feel the effects of it. Some people are okay with being hugged and some aren't. Some people are happy to introduce themselves to someone new, and for some that feels impossible. Some can give money or time or energy without fear and others feel terrified of letting go. Some love to celebrate all the moms on mother's day and others dread that moment like a root canal. We can't heal each other; that would be great. But we can gently old each other's stories and love each other, even when it's hard or when we don't know or understand them. We can keep showing up when it feels like it's hard to be seen and known. We can keep loving and leaning on each other. Only in being known can we truly experience being loved.

The conclusion of the story section of Psalm 139 is this:

앞과 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을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께 맡긴다면요. 당신이 살아가는 이 작은 시간의 점을 그분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다녀오셨고, 당신이 마주하게 될 모든 순간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당신에게 앞으로의 페이지들이 어둡고 신비롭게 보일지라도,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분명하게 보이고, 어떤 이야기는 깊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수십억 가지 다른 '레시피'들이 있겠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전부를 매주 일요일 이 방에 가지고 옵니다. 모든 뒷이야기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영향은 종종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옹을 편하게 여기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즐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없이 돈이나 시간, 에너지를 내어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놓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날에 모든 엄마들을 기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치과 치료만큼이나 두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알려질 때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이야기 부분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all my days were written in Your book
and ordained for me
before one of them came to be.
17How precious to me are Your thoughts,O God,
how vast is their sum!
18If I were to count them,
they would outnumber the grains of sand;
and when I awake,
I am still with You. Psalm 139:16-18**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이루지 않은 나를 보셨으며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그 날들이 아직 하나도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정해지셨나이다.

17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귀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 내가 그것들을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으니
내가 깨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139:16-18**

He saw us unformed. Unfinished. His thoughts traveled with us through birth and into the story of life here in a world that is not often kind. He knew each day and each page. He word and each phrase of the book that would create the story of you. HE knows the

recipes you follow like they're law. He knows and He loves and He cares. And He's here to help you rewrite some of the ashes into beauty.

그분은 우리가 아직 형체도 이루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보셨습니다. 미완성된 상태에서 말이죠.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함께 출생을 지나 이 세상 속 삶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자주 친절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매일을, 책의 각 페이지를, 각 단어와 구절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법처럼 따르는 '레시피'들도 아십니다. 그분은 아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재를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여기에 계십니다.